

The Lion Has a Story Too: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July 20, 2023

Aloha MPC ‘Ohana,

It’s July 20,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I heard a Nigerian proverb on the radio the other day while driving here to MPC. “Until the lion has his own storyteller,” the proverb says, “the hunter will always be the hero of the story.”

I’ve been turning that proverb over in my mind ever since I heard it. And it’s prompted me to stop and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every individual and their story. Because I do believe that every single person does have their own unique story and life experience, and that that counts for something.

All of which reminds me of what I think is a pretty interesting feature of the Bible. Because the Bible has its own special way of telling us to consider an individual’s story before drawing any conclusions about them, pro or con. It’s like this:

One can read certain verses of scripture which will seem to say that this or that collective group of people are not good or not faithful. But then, somewhere else in scripture, one will find the story of an individual from one of those same groups of people who is portrayed as having been very faithful to the Lord.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would probably be the premier example of this. But here are a couple others:

In Deuteronomy 23:3, the Bible says that Moabites are not to be allowed to dwell among the assembly of God’s people. But then a few books later, the Bible tells the story of an individual Moabite lady named Ruth who was a very good and faithful person, who dwelt among the Israelites, who married one of them, and who actually became the great-grandmother of King David!

Likewise, in Jeremiah 25 one reads that people from the Land of Uz are stark raving mad (Jeremiah 25:20). But the Book of Job is all about an Uzzite man named Job who was said to be the “most blameless man on earth” (Job 1:8).

Cynics of course would say that these are examples of the Bible “contradicting itself.” But what such a statement fails to recognize is how ancient narratives (like the Old Testament) actually worked. Because the Bible’s point in telling us about people like Ruth the good Moabite and Job the blameless Uzzite was not to be self-contradictory. The point was and is that the character of an individual counts for more than any “group” which one might be lumped into.

So, the Bible is telling us that even though the nation of Moab did not always act in ways that pleased God, there were individuals like Ruth who were good Moabites nonetheless. And even though many people in the Land of Uz did crazy-bad stuff in the days of the prophet Jeremiah, there were individual Uzzites

like Job whose consciences were upright. Which, again, means that Ruth's and Job's individual stories, and the quality of their character, mattered more than any specific group of people which they were identified with.

And just as in ancient times, so too in our own day and age I think that that truth is worth bearing in mind. Because I humbly think it's probably accurate to say that we find ourselves living in polarizing times. There are loud, shrill voices in our society which seem to be very ready to tell us that people from this or that state, or people who vote this or that way, or people who are from this or that demographic population, etc., are "good" or "bad" based upon which group they are associated with (and all of this is usually dictated by the point of view – or the bias – of whoever is talking about "them").

Scripture, to the contrary, would caution us, I think, not to be so fast, or so cavalier, in how we might be inclined to categorize others. Because it's the individual – their story, their life, their faith, their character, their heart – which God knows. And so, until we have some inkling of that individual's story ourselves, I think the Bible would warn us that we may be very likely to misjudge that other person – and maybe even to miss out of knowing someone who God Himself thinks is really cool.

Me ke aloha,
Pastor Ron

사자에게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오전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7월 20일, 또 다른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저번에 여기 MPC로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이지리아 속담을 들었습니다.

”사자가 자신의 이야기꾼을 가지기 전까지는 사냥꾼이 항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그 속담을 들은 이후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그 속담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개인과 그들의 이야기의 중요성에 대해 멈추고 생각하도록 자극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의 꽤 흥미로운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경에는 찬반 양론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개인의 이야기를 고려하라고 말하는 고유한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경전 구절을 읽으면 이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의 집단이 선하지 않거나 신실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전의 다른 곳에서 주님께 매우 충실한 것으로 묘사된 동일한 그룹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성경은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권 후에 성경은 룯이라는 모압 여인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매우 착하고 충실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살았고 그들 중 한 사람과 결혼하여 실제로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25장에는 우스 땅에서 온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예레미야 25:20).

그러나 욥기는 “세상에서 가장 순전한 사람”(욥기 1:8)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이라는 이름의 웃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냉소주의자들은 물론 이것이 성경이 “모순되는”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고대 이야기(구약과 같은)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했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모압 사람 룯과 흠 없는 웃 사람 욥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요점은 자기모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개인의 성격이 한 개인이 묶일 수 있는 어떤 ”그룹”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압 민족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모압 사람이었던 룯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에 우스 땅에 미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욥과 같이 양심이 정직한 개별 웃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룯과 욥의 개별적인 이야기와 그들의 성격이 그들이 동일시되는 특정 그룹의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그 진리는 마음에 새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저러한 주의 사람들, 이러 저러한 방식으로 투표하는 사람들, 이러저러한 인구 집단에 속한 사람들 등이 그들이 속한 그룹에 따라 ”좋은” 또는 ”나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의 관점 또는 편견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무심하지 않도록 경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개인, 즉 그들의 이야기, 삶, 믿음, 성격,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때까지 성경은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로하,
론 목사